검증 안된 친환경농자재 범람

영농철 농민들 피해 우려

함평군, 지역농협에 철저 관리 촉구

친환경농자재 업체들의 과당경쟁과 검증되지 않은 제품 판매로 농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함평지역 친환경농업단지 농민들은 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검증되지 않은 주문자 상표에 의해 생산된 OEM 제품을 공급하거나 당초 설명과는 다른 제품을 공급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친환경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관련, ▲OEM 제품 납품 금지 ▲중량미달 제품 공급 금지 ▲폐목을 원료로 한 퇴비납품 금지 등을 회원농협에 시달했다.

함평군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유기농자재(118종)의 우선 지원과 적정 수수료만 받고 공급할 것 등을 지역 농협에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농자재 판매업체가 사업초기 농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때와는 다른 제품을 공급해 농민들이 반품하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또 일부 업체는 관광성 로비를 하는 등 과당 경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역농협에 농자재 공급 원칙을 철저히 지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했다"며 "규정과 절차를 어겨 민원을 발생시킬 경우 해당업체를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고발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경지면적의 30%인 4천500ha에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을 목표로 올해 93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영산포 선창거리 일대에서 열린 홍어 축제 기간동안 무료시식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홍어 250t 팔렸다

'영산포 홍어축제' 지역경제에 기여

'영산포 홍어축제' 기간동안 250여t의 홍어가 팔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영산포 홍어축제추진위원회 주최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영산포 선창거리 일대에서 열린 홍어 축제에서는 관광객들의 높은 호응속에 관내 45개 업체의 연매출 대비 10% 분량인 250여t의 홍어가 팔렸다.

2만여 평의 유채밭에서 시민 건강걷기 대회를 시작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홍어장사 선발대회와 홍어 예쁘게 썰기 경연대회 등의 행사와 홍어 연 만들기, 홍어 페이스 페인팅, 천연염색체험, 짚불공예체험, 소달구지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영산포 홍어연합회(회장 강건희) 회원들은 축제 예산 2천만원을 자발적으로 보태고 무료 음식 코너를 운영하는 등 민간 주도형 축제로 탈바꿈시켰다.

이철웅 추진위원장은 "홍어 축제는 홍어 상가의 활성화와 함께 주민들의 소득과도 직결되는 만큼 향후 문제점들을 보완해 알차고 내실 있는 축제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진도 신비의 바닷길 세계 명소로 만든다

유네스코 자연유산·기네스북 등재도 추진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을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진도군은 오는 5일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2.8km의 바다가 너비 40~60m로 갈라지는 바닷길에서 기네스 기록 도전 등 세계적인 명소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

진도군은 '세계 최장의 바닷길'과 '바닷길에 들어가 있는 체험 관광객의 숫자'라는 두 가지 타이틀로 세계 기네스 북에 도전한다.

기네스북 등재와 함께 세계자연유산 등록도 추진된다.

진도군은 세계자연유산에 등록하기 위해 조망대 확보 등 체계적인 환경 보호와 바닷길 보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진도군관계자는 "신비의 바닷길은 앞으로 15~20년 후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우려가 있어 세계자연유산 등록에 앞서 기네스 북 도전을 실시하게 됐으며 바닷길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번 축제 때 바닷길에서 호미, 낫 등 장비를 동원한 채취행위를 금지하고 바닷길 체험 인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장흥군 전국 최초 무산 김양식

〈無酸〉

자문위 구성 본격 활동 … 풀무원 등과 MOU 체결도

장흥군이 전국 최초로 무산(無酸) 김양식에 도전한다.

장흥군은 2일 실내체육관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산 김양식 선포식을 개최한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서는 장흥군과 (주)풀무원, 삼해상사 주식회사, 서울건해물 주식회사간에 무산 김 생산 및 유통에 관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189 어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5%가 무산 김양식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

군은 무산 김양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교수·어업인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친환경 기법인 무산 김 양식은 ▲장흥김 소비확대 및 소득증대 ▲해양생태계 복원 ▲파래와 매생이 생산량 증대 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해남 보건소 치매 검진

60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해남군 보건소가 관내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1차 치매선별검사(MMSE-KC)를 받은 뒤 치매 의심자로 판정될 경우 전문병원에서 2차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군 보건소는 최종 치매 판정 환자에 대해서는 치매 건강관리요령을 지도하고 전문의사와의 치료를 주선하는 한편 개인별 치매 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화순에 주공아파트 들어선다

화순군에도 주공아파트가 들어선다.

화순군과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지난달 29일 화순군청에서 화순군 주거복지 향상 및 지역개발을 위한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주공은 화순군이 광주시 인접지역으로 주택건설사업 시장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적절한 시기에 아파트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화순군의 주거문화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영암 망호정 마을에 '농촌체험관'

농협전남본부, 165㎡ 규모 한옥 건물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가 지난달 30일 영암군 영암읍 망호정 마을(대표 이경호)에 농촌체험관〈사진〉을 설치했다.

망호정 마을은 2005년 (주)현대증권, 영산포 제일병원과 자매결연을 한 뒤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펼쳐 지난해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시범마을'로 선정됐다.

이날 준공된 체험관은 165㎡(50평) 규모의 한옥 건물에 3개의 방을 갖춰 도시민들이 숙식을 하면서 참빗·연잎차 만들기, 고추따기 등 갖가지 농사체험이 가능하다.

이덕수 전남본부장은 "범국민운동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